

#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도전과 도약

김 선 요(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대중매체들이 연일 앞을 다투어 그에 대한 지면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15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흑인으로서 명문학교를 거쳐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번 미국의 대선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혹시 공교육을 받지 않은 홈스쿨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홈스쿨운동의 지난 역사를 더듬어보면서 이 운동의 선구자들이 감당해야했던 일들과 홈스쿨링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홈스쿨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교육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공교육이 도입될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보편적이며 통일적인 교육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공교육은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보편성과 통일성을 공통 기반으로 삼은 국가 관리의 공교육제도는 이미 그 자체에 획일성, 몰개성성, 그리고 순응성이라는 모순을 갖게 되었다. 공교육의 이러한 특성은 학생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창조적인 능력의 싹을 잘라 유연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학교분위의 공교육체제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고자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공교육의 공고화(鞏固化)와 해체화(解體化)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스쿨링은 학교 분위의 교육을 벗어나고자하는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교육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은 '국가의 교육권'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국가 관리의 학교를 신뢰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스쿨링은 가정학교, 재택 교육, 재택 학습이라고도 부른다. 홈스쿨링은 교사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와 동일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유치원에서 고3과정을 이수하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환경에서 적어도 일부는 계획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중심의 교수와 학습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홈스쿨링은 획일적인 교육형태 라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매우 풍부한 교육의 장을 학습장으로 삼는다.

## II.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토양과 터전

가정은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가장 기초적인 학습장소라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오늘날과 같은 학교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에도 교육의 중심은 가정

었고,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을 지는 교사였다. 홈스쿨 운동은 이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기초적 형태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홈스쿨 운동 초기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를 느낀 부모들이 다수 참여하는 편이었다. 당시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홈스쿨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자, 종교적 광신주의자들의 편향된 교육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 후 홈스쿨 운동이 제도에 오르고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홈스쿨링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국 홈 에듀케이션 연구소』(National Hom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의 브라이언 레이(Brian D. Ray)에 의하면, 2008년 중반기 현재 미국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속하는 홈스쿨링 학생은 대략 2백만-25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10년에는 대략 홈스쿨링 인구는 대략 3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홈스쿨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영국, 불란서,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에서 합법적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홈스쿨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정부의 묵인 아래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홈스쿨 운동이 시작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말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도 홈스쿨링과 유사한 개념의 교육을 실천해왔지만, 1999년 1월에 창간된 대안교육 격월간지 “민들레”의 창간호 특집으로 다룬 ‘가정학교 이야기’의 독자들이 만든 ‘가정학교 모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기독교 홈스쿨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은 2000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제1회 기독교 대안교육과 홈스쿨운동’ 세미나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이 협의회 산하의 ‘기독교대안학교위원회’와 ‘기독교홈스쿨위원회’가 각각 ‘기독교대안학교연맹’과 ‘기독교홈스쿨연맹’으로 발전되었다. ‘기독교홈스쿨연맹’ 외에도 ‘치아코리아’(CHEAKorea), 서울 ‘온누리교회’, 분당 ‘샘물교회’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홈스쿨 운동에 동참하였다.

홈스쿨링은 주로 전통적인 핵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교적 젊은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흑인이나 이민자보다 일반적으로 백인 중류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아버지는 근무시간에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누리는 근무조건을 갖춘 직업에 많이 종사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홈스쿨링을 하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홈스쿨링은 매우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홈스쿨링은 백인이 아닌 부모, 전통적인 핵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은 부모에 의해서도 실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부가적인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과 절대적인 가치가 결여된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종교관이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85-90%정도의 가정이, 영국의 경우에는 40%정도가 종교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성과를 기대하거나 친구 간에 학업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전인적이고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든다. 이 밖에도 홈스쿨링의 가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향상되어 결국은 가족 전체의 삶이 향상된다는 점도 강조된다.

### III.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도전과 응전

미국 홈스쿨의 역사는 한 마디로 ‘도전과 응전’라는 말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홈스쿨 초기부터 수많은 개인과 단체, 기관으로부터 홈스쿨을 제약하고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전통적인 주류 교육학자, 관리, 교원단체, 언론인 등 사회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홈스쿨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거나 적대적이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홈스쿨에 대한 억압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오히려 홈스쿨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79년 1월 6일 미국 유타 주에 사는 존 싱거라는 농부의 죽음은 홈스쿨이 어떠한 교육운동인지 세상에 널리 알리고 홈스쿨링이 급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유타 주 외의 미국 전 지역에서 의무교육과 의무취학을 개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즉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이 부모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당시 홈스쿨링의 선구자들은 교육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교육에 대한 부모 자신들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의 헌법 제14 수정조항과 제1수정조항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제14 수정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는 자유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 수정조항에는 “모든 시민이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에 대한 법정공방이 간단하지 않았던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의 책임이 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교육정책은 다분히 주 정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 정부도 학부모에게 의무취학, 교사자격증 요구, 교육과정 승인, 가정 방문, 기타 해야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홈스쿨이 이를 일일이 충족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주 정부의 관심사항과 학부모의 종교를 포함하는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조 수정조항 및 제14조 수정조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헌법의 편을 들어 홈스쿨 측의 주장을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했다.

자녀교육의 1차적 책임과 유사한 홈스쿨링 관련 소송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특히 홈스쿨 부모들에게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해온 문제는 바로 ‘교원자격증’ 문제를 들 수 있다. 학부모들이 모두 대학을 다녔거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자녀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경우, 홈스쿨러들은 엄격한 ‘교원자격증법’과 홈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적대적인 조치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송 사례는 1985년 드존지(DeJonge)와 베네트(Bennett) 두 가족이 관련되어 있다. 이 소송에서 두 가족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다가 1993년 5월 25일 미시간 주 대법원으로부터 4-3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대법원은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여 홈스쿨링 가정의 학생은 추가 자격을 인정된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는 요구에서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홈스쿨러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단체는 학교 행정가들과 교원노조를 들 수 있다. 학교 행정가들에 의하면, 홈스쿨링은 교육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홈스쿨링을 반대했다. 미국의 교원노조 역시 홈스쿨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반대했다. 따라서 학부모가 홈스쿨을 굳이 선택해야한다면, 주에서 정한 모든 의무조항을 충족시켜야하며,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서만 교수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홈스쿨은 직계가족에 한해야하고 모든 교육비용은 자가 부담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홈스쿨러들은 이처럼 교육 행정가들이나 교원노조가 홈스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공립 학교 행정가와 교사들이 홈스쿨 학생들을 학교로 유치한다면, 학생 1인당 \$3,000-4,000 정도의 재정적 이득을 주와 연방정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이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홈스쿨 사이에는 교육과 아동을 바라보는 철학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자녀들의 학업성취 간에는 결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홈스쿨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홈스쿨러들은 반박했다.

이와 같은 홈스쿨링에 대한 도전에 홈스쿨러들은 어떻게 응전했는가? 홈스쿨 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그동안 홈스쿨을 운영해왔던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별로, 주별로, 더 나아가 전국 차원의 규모에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교육적으로는 홈스쿨 가정을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홈스쿨 운동과정에서 홈스쿨링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관으로는 「홈스쿨 법적 방어 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HLSDA)를 들 수 있다. 이 협회는 홈스쿨 가정이나 단체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하고 소송을 대리한다. 또한 「전국 재택교육 연구소」(National Hom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역시 홈스쿨링 연구의 센터로서 법률적인 자문과 연구 및 자료지원 활동을 펼침으로서 홈스쿨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 IV.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도약을 위한 과제

최근 들어 홈스쿨 운동이 각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학문적인 수월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전국 단어 왕’(spelling bee) 경시대회에서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홈스쿨 출신이었다. 지리 경시대회에서 2위와 3위 등 결승에 오른 10명 가운데 4명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 학생들이었다. 지난 수년간 유치원에서 고3(K-12)이르는 수백 명의 홈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탠포드 학력검사에서 여러 학문영역의 평균성적이 상위 33%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홈스쿨의 학업성취에 대해 가장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국 단위의 연구는 「전국 재택교육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 브라이언 레이(Brian Ray)는 5000여명의 홈스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학력평가에서 상위 13-20%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홈스쿨링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홈스쿨 학생들이 집안에서 주로 지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홈스쿨 연구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심리발달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자아개념 연구에서 존 웨슬리 테일러(John Wesley Taylor)는 홈스쿨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화,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홈스

쿨 학생들은 공립학교 상대그룹보다 더욱 사회화되고 성숙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달리 홈스쿨 학생들이 어떻게 공립학교의 다른 상대학생 그룹에 비해 더 사회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홈스쿨 단체나 학부모들은 서슴 없이 일반 학생들이 주로 또래집단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해, 홈스쿨 학생들은 세대가 다른 부모나 지역사회 성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홈스쿨 학생들은 상대의 공립학교 학생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특별활동, 지역사회봉사, 현장견학의 회수와 범위에 있어서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홈스쿨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직도 낯선 풍경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누구나 홈스쿨에 동참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홈스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교육권과 마찬가지로 학습권이 존중받아야하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빨리 도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홈스쿨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교육법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히 존재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홈스쿨링의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학벌주의(學閥主義) 혹은 학력주의(學歷主義)에 의해 학교를 절대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교육이 홈스쿨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홈스쿨 운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편견 없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열린 마음과 이성이 필요하다.

셋째, 학력(學力)을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공중 가능한 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일도 홈스쿨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각 가정의 교육관에 따른 학습인 만큼 정형화된 교육내용이나 교재는 오히려 홈스쿨 취지에 어긋날 수 있지만, 교육의 기본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는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주로 홈스쿨 연맹과 같은 연합기구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필요한 정보와 공유가 요청된다.

넷째, 부모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홈스쿨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홈스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적능력, 경제력 등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홈스쿨링 부모들의 연대와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이력을 소유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역사회의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그리고 방과 후의 학교시설 등 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홈스쿨링의 경우에도 사회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홈스쿨러들은 이 부분에도 각별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행,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직종과 계층, 연령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다면 사회성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홈스쿨 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세칭 일류학교를 지향한 일종의 과외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홈스쿨’이라는 학습지 시장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이 학부모들 가운데는 일부는 일류학교에 대한 ‘환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스쿨을 시작하고자 하는 부모들,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은 왜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홈스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자녀들을 어떠한 사람을 키우고자하는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 V. 맺는 말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도 교육계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이나 개방형 자립학교의 설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홈스쿨 운동은 이러한 학교들의 설립취지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교육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러들은, 전통적인 교육패러다임과는 근본적인 철학이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추구한다. 학교 본위의 공교육만이 교육을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곧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외국의 홈스쿨 운동은 학교본위 교육에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왔고 그들과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오늘날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았고, 그 해답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표준을 말씀 안에서 찾고, 이를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애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소수였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큰 무리를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연결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을 돕는 손길이 많아졌고, 그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개인과 조직,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 홈스쿨이 이루어 놓은 지난 30여년의 성과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교육시스템의 범주를 전통적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학교 밖의 새로운 시각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홈스쿨 운동의 철학과 시대정신, 운영체계, 성과와 한계에,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홈스쿨링 내부에서도,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도우며, 가정과 학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특히, 제도권 교육기관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홈스쿨링 아동들에게 더욱 바람직하다. 교육을 위해서 아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교육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 볼 때다.